

2024년 03월 24일 13주간  
종려주일

제24-13호  
목장성경공부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02 2613-2080 . 2683-2080  
FAX 02 2689-1230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종려주일	그리스도의 비하
성경말씀	마태복음 27장 11~26절(신약 p.49)
암송구절	마태복음 27장 22절(신약 p.49)
찬 송	찬송가 144(통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가 151(통138)장 만왕의 왕 주께서

## 본 문 이 해

로마의 식민통치를 받던 이스라엘은 상당부분 자치권을 갖고 있었지만 사형 선고권과 집행권은 총독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성 모독죄로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마 26:63~65), 예수님을 굳이 빌라도에게 끌고 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고 거짓 고발을 하여 죄목을 반역죄로 슬쩍 바꿉니다. 그들의 계락을 간파한 빌라도는 특별사면 제도를 활용해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지만 유대인의 데모로 결국 자신의 안위를 선택합니다.

## 말씀 속으로

1.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 11절

–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매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 “네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 보충설명

본디오 빌라도는 제5대 유대 총독(주후 26~36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았지만 사형에 관해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지도자들은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을 이끌고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을 재판하여 사형시켜 달라고 요구합니다. 황당한 것은 죄목을 슬쩍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법으로는 신성모독죄가 사형에 해당하지 않기에 반역죄로 바꾼 것입니다.

## 2.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임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7장 15~18절

- 15절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 주는 관례가 있더니
- 16절 그 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 17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 18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 준 줄 앎이더라

- 무죄 석방하기 위해 특별사면 제도를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 보충설명

당시 로마 총독은 이스라엘의 명절에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마침 유월절이었기에 사형수 한 명을 사면할 수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할 요량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라바와 예수 둘 중 한 명을 선택하면 사면하겠다고 밝힙니다. 바라바는 악명 높은 죄수로 사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설마 흉악한 죄수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겠나 싶어 그렇게 제안했던 것입니다.

## 3. 빌라도는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19~26절

- 19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 20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 21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의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 22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 23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민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 26절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

---

-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

#### 보충설명

재판 도중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꿈에서 예수님 때문에 애를 먹었으니 상관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악명 높은 죄수 바라바를 사면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의 거센 반발에 빌라도는 혹시 민란이 일어나 자칫 책임을 지고 권좌에서 물러나게 될까 걱정되어 예수님을 넘겨주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

#### 묵상 이야기

체코의 얀 후스(1372~1415)는 신학교 교수로 성경을 연구하다가 중세교회의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교황이 아닌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음을 깨닫고 모국어인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면죄부 판매를 비판했습니다. 이에 교황이 그를 압박했지만 그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이 말을 남기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당신들은 거위(체코어로 후스는 ‘거위’라는 뜻) 한 마리를 죽이고 있지만, 100년 후 백조가 나타나면 결코 거스를 수 없을 것이오!” 그 말대로 마르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진리를 외치게 됩니다. 그의 선택은 정말 옳았습니다.

---

#### 나눔

-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지셨는지(비하) 나누어 봅시다.

#### 기도

- 나의 구원을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하소서.

#### 적용

- 빌라도처럼 후회되는 선택이 아닌 예수님처럼 살리는 선택을 합시다.